

2023 문화계 결산 <1> 미술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대형 이벤트 풍성

코로나 앤데믹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문화계는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올해 문화예술계 이모저모를 미술, 공연, 문학 3회에 걸쳐 결산한다.

올해 미술계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여느 해보다 많은 해였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치러져 현대미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제3회 국제수목비엔날레, 아트광주23, 전남도립미술관 이견희컬렉션 등 대형 이벤트들이 연달아 개최돼 코로나에 지쳐 있던 관객들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만 94일이라는 최장기간 국제적인 미술 행사에도 불구하고도 광주비엔날레는 이슈나 담론, 전시 구성 등에 있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시기간 논란에 휩싸인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도 옥의 티였다. 1회 수상자(엄정순 작가의 '코없는 코끼리') 선정으로 막을 내렸는데, 공평회 등 지역 미술계와 충분한 논의와 교감 없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준 순기능 역할을 했다는 긍정

적인 평가가 뒤따른다.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관람이 잇따르는 등 문화예술 교육 현장이자 필수 코스로서의 명성을 확인했다.

해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도 두드러졌다. 휘트니미술관의 아담 D 웨인버그 관장을 비롯해 데이트 모던의 프란시스 모리스 관장, 카스텔로 디 리볼리 현대미술관의 캐롤린 크리스토프-비카기에프 관장, 모리미술관의 마미 카타오가 관장 등이 찾아왔으며 영국 데이트모던 후원회, 뉴 뮤지엄, 워커아트 센터 등의 관계자도 다녀갔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특히 일부 파빌리온이 밀집된 양림동은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로 북적이며 문화 관광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대중성, 정체성, 경제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시립미술관, 동구미로센터 등 지역에서 열린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50여 개국 195개 기업, 디자이너 855명이 2718점 작품을 선보였다.

비엔날레전시관 등 11개 행사장에는 총 53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포털을 통한 예매 방문객이 남긴 관람평은 평균 4.35(별 다섯 개 기준)로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 디자인이 바꾸는 기술의 미래, 라이프스타일, K-컬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했다.

특히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가운데 2166만불(292억원 상당) 상당의 수출상담 및 855만불

(115억원 상당) 규모의 수출 계약을 비롯해 지역상품 판로 지원, 전시 작품 상용화 등은 가시적인 성과로 꼽힌다.

'물 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9월1일-10월30일)는 역대 최고인 관람객 43만 명을 기록했다. 흑백의 기존 틀을 깨고 무거운 작품에서 벗어나 자유와 성찰에 초점을 맞춘 점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팬데믹 이후 개최된 국제전시인데다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메가 이벤트와 연계돼 학생은 물론 기업인, 가족 단위 관람객 등 다양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 23'(9월 21-24일)은 미술문화축제 면모를 보여줬다. 3만 4000여명 방문, 판매액 24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첫 작품 구매가 증가했다. 이번 '아트광주 23'은 105개 갤러리 부스와 13개 특별전 부스 등 모두 118개 부스로 구성됐다. 105개 부스 중에는 국내가 94개, 국외가 11개였으며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리는 미술축제'에 맞춰 광주·전남에서는 44

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올해부터 허백련·오지호미술상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됐다. 그동안 광주예총에 이어 광주시에서 주관해 오던 문화예술상 허백련·오지호미술상을 시립미술관에서 맡게 된 것은 문화예술상 위상제고 차원이다. 올해 허백련상에는 박문종, 오지호상에는 송필용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올해도 '이견희 컬렉션'을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21년 지역 미술관 최초로 '이견희 컬렉션'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특별전을 개최해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었다. 2023년 국제 수목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돼 의미가 남달랐다. 전시에서는 이종섭, 박수근, 천경자,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찬연하게 장식한 거장들의 작품 62점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당초 전시가 10월 29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도민과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11월12일까지 연장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족 오케스트라 효천 '스며들다 스밌, 협주곡의 밤'

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현악기들의 선율이 서로 스며드는 아름다운 협주곡의 밤이 펼쳐진다.

사운드오브뮤직에서 2021년 창단한 가족 오케스트라 효천(지휘 강직)이 연주회 '스며들다 스밌, 협주곡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은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RV 531단조', 멘델스존 '두 대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D단조 Op.114'로 막을 연다. 첼로와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질 예정. 이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K.467'과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을 들을 수 있다.

미완성 교향곡인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B단조 D.759'도 관객들을 만난다. 슈베르트가 1822년 작곡해 슈타이마르크 음악 협회에 보내려고 했던 곡으로, 완성된 2개 악장만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미상의 이유로 작곡이 중단돼 '미완'으로 남았다. 미완성 악보는 서랍 속에 남겨져 한동안 잊혀졌으나, 한참 뒤인 1860년에야 발견돼 1865년 빈에서 초연됐다.



효천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운드오브뮤직 제공>

지휘 및 무대감독은 조선대 음악과를 졸업한 강직이 맡는다. 광주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출강 등, 그네신국립음대 관현악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호신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한 김윤희가 플룻 연주를 들려준다.

색소폰은 박봉주가 맡는다. 안양대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나주시민오케스트라 등에 출강해 왔다.

사운드오브뮤직 김오선 단무장은 "효천오케스트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성장해온 팀이다"며 "처음 악기를 배우는 단원부터 고연령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화음'으로 추위를 잠시나마 잊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추운 겨울, 따뜻한 영화들

광주극장, 12월 예술영화 상영... '리빙' '사랑은 낙엽을 타고' 등

비디오 아트, 문학, 21세기 추상화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영화화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주극장은 12월 말까지 예술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오는 27일 선보이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는 지난 3월 작고한 류이치 사카모토 작곡가의 생애를 아우르는 콘서트 필름이다. 사카모토는 영화 '남한산성', '폭풍의 언덕' OST 등을 비롯해 수많은 디스코그래피를 남겨 온 영화음악계의 거장이다.

그는 타이틀곡 'Thousand Knives'으로 대중과 음단에 이름을 각인시켰으며, 영화 '마지막 황제'의 OST를 통해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외에도 광주극장에서는 예술영화 '리빙: 어떤 인생'도 상영 중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가스오 이시구로가 리메이크한 자전적인 인생 영화로, 주인공 '윌리엄스'가 무미건조한 삶을 벗어나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내용이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제76회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헬싱키를 유랑하는 두 남자가 팽랑팽리한 감성으로 로맨스 감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미국 타임지가 '올해 최고의 영화 1위'로 이 작품을 선정하면서 주목 받았다. 감독에 아키 카우리스마키.

유연에 따라 최근 미술계에서 '해금'된 21세기 추상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를 초점화한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조이엔드'는 21일 개봉했다. 그는 1500여 점 작품과 2만 6000페이지의 작품 노트를 공개하며, 추상화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풀어 냈다. 또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특별 전시와 함께 펼쳐지고 있다.



'리빙: 어떤 인생'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조이엔드'

김형수 전무사는 "현대 영화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 20세기 최초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백남준을 비롯해 힐마 아프 클린트 등 반짝이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 영화들을 마련했다"며 "살얼한 날씨이지만 극장에 찾아와 따뜻한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하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영 시간표 및 예매는 광주극장 홈페이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간에 대한 연민과 존재에 대한 성찰

이종천 시인, '오래된 무늬처럼' 펴내

"꿈에서 그려진 그림인지 알 수 없다. 계절을 밀어내듯 체념한 눈송이 함박눈으로 내리고 있지만 문을 밀고 나온 그는 쓴잔을 내리고 있을 터, 라디오에서는 아리아가 울려 퍼지고 동지는 저물고" 전북 진안 출신 이종천 시인의 말이다. 계절의 절기상 동지와 맞물리는 시가라 시인의 말이 유독 깊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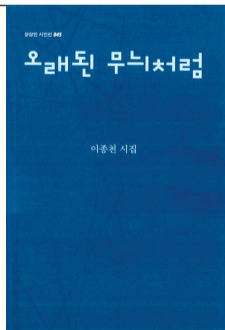
이 시인이 최근 '오래된 무늬처럼' (상상인)을 펴냈다.

작품집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풀어낸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이미 변해버린 세계와 그럼에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추구

하는 화자의 심리 등이 서정적인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 때굴때굴 구르고 또 구르는 저 소리는 무엇일까 싶었어// 나폴거리는 풀잎을 모퉁이로 물고 가는 바람들/ 코너와 같은 막다른 골목 외딴섬의 잔혹사를 보게 되었어/ 환호와 탄성의 뒤안길 그 앞에는 가변으로 가려진 세계// 꽃들을 비웃듯이 데굴데굴 구르다가 잠시 이따리들 속에서 쉬고/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 구르지만/ 굴러 봤자//속 빈 감정은"

위 시 '강릉' 전문은 모두 떠나버린 외딴섬에서 보게 된 풍경을 스케치하듯 묘사하고 있다. 한때는



"환호와 탄성"이 깃들어 있을 영화의 순간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 외딴섬"으로 변해버린 상황을 화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단 섬편이겠는가. 화려한 꽃들의 시절은 지나가 마련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데굴데굴 구르다가" 어느 곳이나 버려질 '강릉'의 순간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모든 삶의 흔적에도 드리워져 있을 법하다. 화자는 그것을 '속 빈 감정'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한편 이 시인은 그동안 시집 '그가 보고 싶다'를 펴냈으며, 이번 시집은 전북문화재단 창작기금 수혜로 출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